

건축사지 지역건축특집 시리즈 ①

Special Series of Architecture Magazine: Regional Architecture ①

호남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Looking for Identity of Honam Regional Architecture



그간 건축사지에 수록된 건축 작품들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대한민국의 다양한 지역의 작품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하여 왔다. 그러므로 이번 월호부터 한지역의 작품과 문화적인 배경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특집을 기획하여 보기로 한다. 그 첫 번째로 호남지역의 문화와 건축을 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해보았다.

- 대담일시 : 2013년 8월 23일
- 대담장소 : 광주대학교 백인관 5층 소강의실



대담자(가나다 순)

- 김형수 건축사 /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인 겸 편집국장
- 윤대한 교수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 사회 및 정리
- 박홍근 건축사 / ㈜포유 건축사사무소 / 광주
- 신태양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 양병범 건축사 / ㈜유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남
- 이길환 건축사 / ㈜길 건축사사무소 / 전북
- 이효원 교수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정명환 건축사 /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 광주
- 조성호 건축사 / ㈜광주 공간건축사사무소 / 광주



김형수 편집국장 : 이 특집은 한국의 각 지역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건축의 정체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건축의 지역적인 아이덴티티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고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건축적인 흐름을 찾아낸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의 사투리와 호남의 사투리가 다르고, 음식문화에서도 지역적인 특색이 분명 존재하는 것과 같이, 한국 현대건축의 흐름에서도 지역 간의 미묘한 특색과 아이덴티티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예측에서 대담을 기획하였습니다.

차별화되는 호남의 건축적인 정체성을 반드시 확인한 다기 보다는 호남과 호남건축의 콘텐츠를 전국에 소개한다는 편한 마음으로 대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지역의 지리와 문화적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형수 편집국장



양병범 : 먼저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화엄사), 내장산(백양사), 월출산과 다도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최근 지정된 무등산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국립공원의 약 30%가 이 지역에 있고 영산강과 호남평야와 같은 비옥한 땅이 있어,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에 있는 시구절처럼 ‘술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의 풍경을 가진 지역입니다. 즉 쌀로 술을 빚을 정도의 여유와 멋진 저녁놀을 가진 곳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배경으로, 호남문화에는 많은 고인돌들이 증거하는 유구한 역사, 불교, 고려정자, 시가문화, 문인화, 구국 의병운동, 판소리, 향토음식 등등 삶의 다양한 국면에 ‘멋’과 ‘맛’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인구에 회자되는 ‘멋과 맛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의향’, ‘예향’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태양 : 지리적으로 평야에 위치하여 넓은 농촌지대로부터 유입되는 재화와 용역을 바탕으로 생산 및 교역을 위주로 한 문화와 시설이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물산이 풍부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 창작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를 즐길 수 있는 일상의 삶이 예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 전통(소리, 춤사위, 서화, 문학 등)을 형성하였습니다.

이길환 : 호남의 가장 큰 지리적 특징이 풍요로운 자연환경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넓은 평야와 발달된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한 곡창지대와 인접한 해산자원으로 질 높은 삶과 여유로움이 호남 사람들



의 기본 성향입니다. 이런 이유로 동부산간지방, 평야지의 풍부함과 해안지방의 수산물이 모여져 맛으로 유명한 전주, 광주, 나주 등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같은 풍요로운 삶이 예술적 부분까지 영향을 주어 다양한 문화제가 있고, 정신적으로는 서정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명환 : 호남은 정치적으로 유배되었지만 정약용과 윤선도가 남긴 문학이 있고, 송순의 면앙정, 송강의 환벽당, 식영정, 송강정, 양산보의 소쇄원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가사문학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동편제와 서편제의 소리요람이기도 하고, 남농 허건과 의재 허백련으로 대표되는 남종화가의 산실인 곳입니다.



조성호 : 호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공존하고 있고 각 고장마다 오래된 삶과 마을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광주는 서울과 거리는 멀지 않으나 제주나 부산보다도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고,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은 곳이며, 인구도 적은 곳입니다. 다행히 최근 힐링 및 친환경 생활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개발되지 않은 자연을 미래의 큰 자산으로 여기고, 활용하려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문화적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중앙을 따라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 특징을 살린 몇 개의 성공사례도 있지만 주도적인 지방문화를 만들기에는 아직도 버거운 모습입니다.



박홍근 : 넓은 들판과 풍부한 먹거리, 풍류를 즐기는 멋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농경사회의 특징이 지금까지도 삶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산업시대를 거쳐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도 이런 문화적 특징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기’ ‘머시기’로 통하는 정(情)의 문화라고 봅니다. 그러나 빠른 변화와 지역 간 도시 간 치열한 경쟁의 시대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극복하고 긍정적인 것은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윤대한 : 앞서 이야기된 것 외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호남의 지리적 특징은 시공간 스케일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휴먼스케일’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것과 땅이 ‘붉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의(義)’에 대한

인식이 강한 지역이며, 예술분야에서 타 장르보다 미술의 영향력이 큰 것이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남 현대건축에 영향을 준 역사적인 배경과 인문사회적인 기반은 무엇입니까?

-김형수 편집국장



이효원 : 호남이 가진 역사적 및 인문사회적 기반으로 정치적인 소외와 이로부터 비롯된 약한 경제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외는 건축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규모나 좋은 건축적 질을 가져가는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것을 바로잡거나, 선순환으로 만들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나쁜 것에 나쁜 것을 더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태양 : 호남 현대건축의 역사적 연결고리로 1900년대 초를 기점으로 나타나는 서양 선교사들이 도입한 근대건축(교회, 학교, 병원, 주택, 기념관 등), 일본인들에 의해 도입된 거류지건축(지구 및 필지분할, 주거 점유 상가, 창고 등), 공공건축분야의 서양의사양식(관공서, 교육시설, 금융시설 등) 등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정명환 : 특히, 일본의 식민지배 방식의 도시개발과 달리, 양림동 서양촌을 중심으로 한 순수선교활동과 의료선교 그리고 서양식 근대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은 광주 현대건축의 기반이 되는 근대건축의 또 다른 맥락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건축되어진 수피아홀, 오웬(Owen) 기념관, 유진벨 기념관, 우일선선교사 사택 등이 아직 남아있고, 현재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현대적 관점에서 양림동을 재생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박홍근 : 그와 더불어 불의에 항거하는 각종 의병활동과 일제 강점기의 광주학생운동, 80년대 민주화운동,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의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표출된 랜드마크 논란과 기존 건물의 철거와 보존에

대한 지역사회의 치열한 논의과정은 지역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고 봅니다. 또한 다양한 외국의 유명사재를 통하여 좋은 건축이 도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지역에서 이슈를 끌만한 대형 프로젝트가 없었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하여 건축과 도시, 건축과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도의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양병범 : 호남 현대건축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상징성과 조형성이 높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주로 참조했던 인문사회적 주요 레퍼런스들은 '5·18'과 '예향', '빛의 도시', '광산업'이었습니다. 광주 역사상 가장 큰 건축(도시)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과 문화전당의 배경은 '빛+예술+인권의 도시'라는 인문사회적 자산이 '아시아 문화수도'라는 논리로 승화되어 물리적인 건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 행정구역의 변화인 광주광역시, 전남도청의 분리와 도청, 시청의 신도시 이전을 들 수 있으며, 기존 도심에서 각 관공서 청사의 이전, 주거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의 지속적 생성으로 구도심 몰락 등이 호남 현대건축의 생성, 변화, 소멸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수도권을 모방한 개발로 지역의 아이덴티티는 더 없어졌다고 봅니다. 대도심 광주의 도청이전지에 5·18 민주화운동과 소외지역에 대한 정치적 보상 같은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농어촌에서는 새마을 운동 같은 관주도 '한옥주거와 한옥형 공공건축물' 프로젝트로 전라도 마을과 도시경관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길환 : 전주의 경우,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1960년대에 전주 전(前)시청사거리에 모 조미료회사에서 에펠탑을 형상화하여 만든 탑이 있었습니다. 2~3층 조적건물이 대부분이었던 그 상황에서 철골탑에 현대적인 네온사인이 번쩍이는데 그 당시 건축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신천지라고 할 수 있는 구경거리였는데 이 탑을 통해 건축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리 에펠탑의 시대적 배경처럼 말입니다.

호남지역의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어떤 것을 언급할 수 있습니까?

-김형수 편집국장

박홍근 : 도시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은 용도에 따라 어느 도시에나 있는 것이 되어 특징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평야, 들밭, 무등산, 흙 등의 자연



전주시청



미륵사지 전시관

적인 요소들은 이 지역의 건축사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건축하려는 타 지역의 건축사들도 생각하는 디자인 근거에 흐르는 아이덴티티가 아닐까요?

이효원 : 아이덴티티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특정한 풍토와 그로 비롯된 특정한 인문사회적 배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대 이전에는 가능한 것일지 몰라도, 산업혁명 이후 근대건축은 몰지역성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광주로 특정하자면, 일제 이후 도시화되었고, 1960, 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근대건축으로 채워진 도시입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입니다. 자연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군집형이 아닌 일자형의 건물의 개별적 배치와 자연과 어우러지는 형태가 이 지역 건축의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로 생각됩니다. 이 대표적 사례가 소쇄원이고, 가깝게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아닐지라도 이런 태도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다른 어떤 지역과도 차별화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병범 : 소쇄원, 다산 초당, 보길도, 운조루 등등 호남의 훌륭한 옛 전통건축에 대한 디자인적 아이덴티티에 관한 것이라면 오히려 쉬울 것 같습니다. 광주 현대 건축물들에 대해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기 위한 건축물 표본이 적기 때문에, 이 지역 건축사들이 실현한 건축의 아이덴티티를 한국 현대건축의 아이덴티티에서 형태적, 공간적, 철학적 측면에서 분리해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길환 : 전북의 경우, 역사적 고도(古都)인지라 많은 문화재를 비

롯하여 한옥마을과 익산금마 고도 등이 도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 한국 전통건축을 디자인적으로 현대적인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 도시와의 건축적 성향이 좀 다른 경우일 것입니다. 전주톨게이트 익산 미륵사지 전시관 군산근대 유산이 전북만의 색깔과 멋이 약간은 다른 지역과 다른 또 다른 고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속성이 너무 과도해 전통을 현대 위에 그냥 얹어놓은 듯 한 불균형 건축물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이며 전주시청처럼 최악의 건축물로도 뽑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륵사지 전시관처럼 미륵탑의 선을 잘 활용한 익산고도에 맞는 건축물도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현대와 전통의 기로에서 어느 정도 현대건축에 전통성을 가미시켜야 할지가 숙제인 것입니다.

조성호 : 호남 지역 도시와 자연에 맞는 조형과 형태, 재료의 특성화를 지역의 아이덴티티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통해서 살펴보면 최근 한옥을 현대화해서 자연과 마을 경관을 거스르지 않게 건축한 운산도 전시관, 기존 도심에 스케일과 길을 맞추고 지하화 하여 랜드 마크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병원냄새 나지 않는 힐링 병원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전남대 화순병원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즉 '도시와 자연에 건축이 튀지 않고 그 일부로서 도시, 자연, 건축, 인간을 서로 평등하게 이어주는 정신'이 호남 건축을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명환 :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지역주의 건축으로 모아질 것 같아 호남지역에 대한 답을 언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각 도시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나 조형물, 또는 토목구조물 등을 랜드 마크라 말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지자체의 캐릭터 마케팅 등 규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지붕의 형태나 건축형식은 특징일 뿐 지역성이라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나친 형태주의로 치우칠 경우 시간이 지나 또 다른 공해가 되거나 다양성의 기회를 차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아이덴티티는 문화입니다.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 전반에 걸쳐 저변에 깔려있는 무형의 정신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설계자의 사고에서 그리고 형태와 공간 등의 건축적 언어로 지역 내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어질 때 이 지역의 건축적 아이덴티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 볼 때 어느 지역에서나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장소성에 근거한 건축, 기후나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건축, 그 지역의 공공에



의재미술관_조성룡



용아빌딩_김한섭



전남대학교대강당_임영배



어비슨기념관_류연창



전주빙상경기장_이상돈



광주문화여성병원_박홍근



광엑스포주제전시관_조성호

기여하는 건축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직 큰 틀을 이루거나 가시적 형태로 보여 진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호남건축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조성룡의 의재미술관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윤대한 : 건축을 '개념의 형상화'로 본다면 개념에 대한 지역적 아이덴티티는 앞서와 같이 어느 정도 논의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형상화에 대한 지역적 아이덴티티는 정말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건축 담론이 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성, 사회성, 지역성의 논점에서 벗어나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동일한 건축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은 디자인의 새로운 통합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부문에서 현대 호남건축의 지역 아이덴티티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어느 정도의 도덕적 의무감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즉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기 보다는 가우디나 차운기와 같은 개성 강한 지역건축가를 길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다 더 새로운 실험적인 가능성의 결과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호남지역의 작가와 작품 중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형수 편집국장

이효원 : 이 지역에서 의미 있는 건축가로 먼저 김한섭과 임영배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파인 김한섭은 근대건축의 제대로 된 이

식을 광주에 실행하였는데, 지금은 없어진 용아빌딩(1957)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김한섭의 제자인 임영배는 호남에서 태어나 호남에서 교육받고 건축가로서 활동한 이 지역의 제1세대 건축가로, 근대건축이 추구한 구조의 명료함과 기능의 합리성, 이로 비롯된 형태와 파사드 등 디자인에 있어서 일등 수준의 성취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설계한 전남대학교 도서관은 무미한 광장을 가진 언덕 위에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상징하는 형태를 구현하면서 앞서 언급한 건축적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홍근 : 임영배 교수의 경우 시민회관도 의미 있는 건축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2세대 건축사들로 류연창, 박화수 건축사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 류연창의 진도향토문화회관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박화수 건축사의 CBS방송국과 광주건축사회관 등은 건축물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길환 : 전복을 살펴보면 전주지역 중심으로 1세대 건축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광서, 전형직, 엄주호, 이상돈 씨 등이 활동하시는데 그중 이상돈 전 전북건축사협회 회장은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작품 중 전주빙상경기장은 전주의 부드러움을 잘 살린 건축물로 기억에 남으며 전주세무서, 군산 근대시간여행 설계 등을 남기시고 협회에도 후배건축사를 위해 많이 조언하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예상됩니다. 길건축 역시 심혈을 기울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대한 : 이 지역의 건축사들이 설계한 광주 현대건축에 대해 건축

사님들이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건축사가 설계한 현대건축물에서 회자할 만한 것으로 세계광엑스포주제전시관, GS빌딩, CGI센터, 문화여성병원 등이 있습니다.

**호남지역 건축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김형수 편집국장

신태양 :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회자되었고 또한 회자될 주요 비전은 '예향'과 '문화중심도시'가 아닐까요?

조성호 : 지역건축의 미래는 현대건축의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주요 키워드인 'Nature' 'Earth' 'Wood' 등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건축이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또 다른 자연을 만드는 건축입니다. 구체적으로 호남건축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과 지역적 재료를 계속 실험해보는 단계로 예를 들면 한옥을 위한 영암 한옥박람회와 목재 건축, 담양의 대나무 건축, 목포대의 흙 건축 등이 좋은 예입니다.

박홍근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는 돈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문화가 성숙되면 건축문화도 함께 성숙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일부 의식 있는 건축주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건축의 미래 비전은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범 : 호남지역 건축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지역으로 국한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라고 단정 짓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사회적 및 문화적인 이유로 팽창을 거듭하면서 변화하고 그 과정 속에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의 여러 도시들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고 특히, 광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폴리,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

광주천 수변정비사업 등 다양한 문화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건축적 미래비전으로써, 이러한 사업들이 단순히 문화콘텐츠를 양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도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사직공원, 광주천, 예술의 거리 등을 연계하는 문화의 축을 형성하여 문화, 상업, 예술 등 짜임새 있는 도시기능의 복원과 재정비가 이루어진다면 품격 있는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효원 : 최근 광주에 있었던 주요한 건축 이벤트들의 특징은 관 주도적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이에 따라 디자인이 바뀌어 나가는 것으로서 이러한 흐름은 지역의 새로운 건축적 미래 비전의 실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최근 광주에 있었던 주요한 건축 이벤트들의 특징은 관 주도적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이에 따라 디자인이 바뀌어 나가는 것으로서 이러한 흐름은 지역의 새로운 건축적 미래 비전의 실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민회관, 사직공원 타워,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광주의 어반폴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광주시민회관, 사직공원 타워,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광주의 어반폴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의 특징은 과거 형태로서 건축이 도시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여 공간과 이 안에서의 추억과 결부된 장소 감각을 통하여 도시공간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나 전문가적 식견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닌 호남지역 공동체가 수용하고 용인하는 선에서의 디자인을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길환 : 전북에서의 전주시는 이미 많은 도시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경제위주의 개발방식이 아닌 '역사적인 고도의 전주', '정원도시로의 전주'가 되었으면 하는 비전을 가져봅니다. 여름에 열섬현상으로 전국에서 제일 더운 지방이 대구 다음에 전주라는 사실에 도시계획 및 건축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일부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15년 전에 시행된 전주시 도시계획 중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가 7~8년 전에 풀리게 된 것 또한 일부 우리가 가야 할 책임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미래 비전으로 어느 도시와는 다른 도시로서의 전주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윤대환 : 가치에 대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비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건축의 비전도 결국 건축사에 의해 실



대나무 건축사례



한옥박람회

현되니까요. 과거 김수근이란 건축사를 통해 우리의 건축이 얼마나 새로 자리매김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지역에서 능력 있는 건축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지역의 새로운 건축적 비전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건축주들이 비슷한 것이라도 서울의 건축사들에게 대해 보다 관대한 경우가 많더군요. 그러나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슬프기도 합니다.

호남지역의 건축설계 업무 환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김형수 편집국장

양병범 :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부분에서 호남 지역의 건축 설계환경은 암울하게 보입니다. 아직도 잔존하는 동서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소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한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최악이라고 생각되어지므로 건축설계 업무환경이라는 말조차 언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박흥근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해 있는 한국에서 이 지역의 부족한 경제력의 한계가 건축설계 업무에 큰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과 예술과 접목된 독특한 건축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성호 : 호남지역의 건축설계 업무 환경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낮은 설계비,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좋은 직원 구하기 어려움, 모호한 건축사의 지위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우리 건축사들의 자존심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명환 : 조직력과 시장성의 관점에서 광주는 대부분 건축사 1인 개인사업장 또는 건축사 1인 법인사업장이 주고, 다수의 건축사가 운영하는 법인사업장이 소수입니다. 이는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력확보 및 수련된 인력의 유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소수인력으로는 프로젝트가 집중될 경우 해결이 어렵고 프로젝트 수급이 어려울 경우 인력의 유지의 어려움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의 경우 단기에 걸쳐 계획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업무 등을 수련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즉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러 명이 해결하기보다는 프로젝트별 전담인력이 한명씩 배정되는 형태입니다. 장점은 기획부터 사용승인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다수의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반면, 단점은 수련 초기에 업무과중과 함께 보다 폭넓은 사고보다는 설계도서 생산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길환 : 호남지역에서 전주라고 업무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고 다른 중소도시와 비슷합니다. 다만 규모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건축문화 창달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몇몇의 건축사님들의 노고에 여러 환경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열악한 환경 탓에 훌륭한 분들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훌륭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여건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대환 : 지역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프로젝트를 위한 초기단계에서의 개념 및 기획설계를 할 수 있는 브레인의 수가 적고 그 능력이 취약함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회자될만한 건축물 대부분은 관주도의 건축물들로, 건축에 대한 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지만 건축프로젝트를 풀어나가는 공무원들의 건축 및 건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낮습니다. 좋은 건축물 뒤에는 반드시 좋은 건축주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관'의 전반적인 역량이 높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지닌 또 다른 특징은 의미 있는 건축프로젝트를 일으킬 수 있는 민간부문에서의 경제력 있는 건축주가 적다는 것입니다. 민간에서 찾을 수 있는 건축의 다양성에 대해 이 지역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민간부문에서의 경제력 있고 의식 있는 건축주가 많이 나타나길 희망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축물 설계들은 수도권 건축사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이 지역 건축사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미미합니다.

아이덴티티 측면에서 호남지역 건축교육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김형수 편집국장

박흥근 : 정말 지역적 특징이 있을까요? 이미 건축교육이 전국화 되어 지역적 특징이 많이 희석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년제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더욱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지역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봅니다.

조성호 : 저 또한 아직은 건축교육에서 이 지역의 특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목조, 흙, 한옥 등의 분야에서 지역적 특색 있는 건축가를 길러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양병범 : 최근 의미 있는 건축교육적 프로그램으로 서울, 부산, 광주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축과 도시문화에 대한 이해와 흥미, 체험을 위한 행복을 담은 건축학교인 '꿈다락문화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적 공통 주제에 맞추어 지역 상황을 건축적, 도시적인 교보재로 만들어 지역건축사, 교수진들이 대학생 스템의 보조를 받아 1

학기 총 30여 시간 동안 이론, 체험, 실습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건축학교는 자체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대학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대학교육도 자기 대학의 강의실에만 갇혀 있지 말고 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한 강사진(교수, 건축사, 공무원, 시민운동가, 인문학자 등)들이 강의하는 커리큘럼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제도 지역건축의 정체성을 출발점으로 한다면 더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길환 : 대학 건축교육을 제외한 전주지역의 경우도 비슷하겠지만, 각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전통 건축설계를 하는 사업부가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전주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문화재 보존과 재정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문화재 시설의 탐방과 실측, 재정비등으로 교육과 실무를 병행하고 있고, 전북대와 원광대에서는 한옥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한국전통건축과 결합된 현대건축 프로젝트를 종종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과 실무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건축학도의 실무배출 후에도 통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의 꾸준한 발전과 보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가 교육 연장의 장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예비건축사 양성에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예비건축사의 인성교육에도 무엇보다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윤대한 : 건축의 지역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차별성 있는 건축교육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 교육자로서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 슬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건축인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통합화되어버린 설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적 특성보다는,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개념적인 이야기들 즉, 문화, 예술, 인권, 빛, 구도심의 재생, 전통과 근대건축문화의 공존, 자연, 친환경, 저탄소 등과 관련한 것들을 건축에 담아보고 교육하려는 노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과거 학생들에게 소쇄원을 공부하고 체험시킨 결과를 재해석하여 설계에 적용시키도록 한 것들은 훌륭한 전통건축이 남아있는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시켜볼 수 있는 가치 있는 교육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효원 : 전남대학의 경우, 앞에서 언급된 지역의 건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과 '생태성'을 건축교육의 목표로 하고, 세부적으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그 인간을 위한 공간과 장소의 생성을 위한 교육, 교육받은 학생들이 건축을 경제적 수단이 아닌 공동선

의 실현을 위해 봉사하도록 교육, 자연에 대한 이해와 건축이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축 교육으로 구체화시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명환 : 호남지역의 건축은 학교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지만, 학교교육은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건축사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5+3」체계는 이전의 대학이 가졌던 건축학도의 배출중심의 체계가 아니라 교육에서 실무를 거치는 건축사 양성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건축학도의 실무배출 후에도 통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의 꾸준한 발전과 보완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가 교육 연장의 장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예비건축사 양성에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예비건축사의 인성교육에도 무엇보다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또 다른 교육의 장으로 나아가 수 있도록... 다음은 관입니다. 관에 근무하는 건축관련 공무원의 의식입니다. 자격증을 따듯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입문하여 건축을 인허가의 대상으로 국한시켜버리는 일부의 의식 수준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도의 유지, 체제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검토의 임무를 맡고 있으나 능동적 사고를 통해 건축의 바라보는 견문을 넓혀야 합니다. 이렇게 교육과 실무, 관이 하나가 되어 교류가고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체계가 정립되고 이 지역에서 시민의식의 저변에 건축의 입지가 높아지리라 확신합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 오랜 시간동안 매우 흥미로운 대담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담론을 통하여 호남과 호남 건축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ㄹ



윤대한 Youn, Dae-han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연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주)청조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였고, 1988년부터 광주대에 재직.
설계작품으로 대구아외음악당 등이 있음.
지역관련 광주현대미술관, 광주전시컨벤션센터, 광주 특등급호텔 등의 건립기본계획연구, 총창로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 환경조사 및 홍보관 설계시공 등의 용역을 수행.



신태양 Shin, Tae-yeung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전남대 건축공학과 졸업.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대학원 건축학과에서 석사, 박사를 취득.
저서로는 <광주건축사(공제)> <공간의 이해와 인간공학> <근대건축미학> 등이 있다.
인간공학, 공간심리, 인간행태에 대한 건축이론에 관심이 많음.



이효원 Lee, Hyo-won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전남대에 입학하여 1997년 박사학위, 1988 건축사자격 취득.
서남대, 동신대에 근무하고 2003년부터 전남대에 재직.
설계작품으로 광주 마재우체국, 동신대 건축관, 전남대 옹지관 등.
최근 광주의 1970년대 근대건축물에 관한 재생문제를 다룬 '광주공원시민회관 건축설계경쟁연구 및 관리용역' 수행.

*이 외 참석자의 약력은 이어지는 회원작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